

환경 지키겠다며 비닐봉투 없애더니...

대형마트들 '종이봉투 장사' 하나

일부선 재사용종량제 봉투 제안도 없어 비난

대형마트들이 소비자에게 비닐봉투 대신 판매하는 '종이봉투'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날 25일 국내 5개 대형마트와 환경보호 명분으로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 협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상품 포장용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했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기존 비닐봉투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비치해 상품포장을 하고 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소결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쓰는 것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하지만 봉투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보다는 자체 제작한 100원짜리 '종이봉투'만 안내하고 있어 고객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지난 1~6일까지 판매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336개 불과했지만 종이봉투는 10배에 달하는 3323개나 팔렸다.

롯데마트 월드점점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평일 평균 50~60개 팔리고 있는 반면 종이봉투는 250~300개 가량 판매되고 있다.

종이봉투의 경우 기존 비닐봉투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내구성이 떨어져 물건을 많이 구입했을 경우 추가로 구입해야 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종이봉투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동구 윤림동 김모(49)씨는 "비닐봉투보다 덜하겠지만 종이봉투도 환경오염을 시키긴 마찬가지"라며 "비닐봉투보다 비싼 종이봉투를 환불도 안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주부 이지영(31·북구 유동)씨는 "계산대에서 봉투를 요구하자 직원이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바로 종이봉투를 건넸다"며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버릴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환불도 안

되는 종이봉투를 100원이나 주고 사는 것은 낭비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종량제봉투'보다 '종이봉투'를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종이봉투 판매금액은 전액 자사 수입이 되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대부분이 지자체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 740원(서구 기준)에 판매되고 있는 20ℓ 짜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한 개를 팔면 수수료(8.7%) 64.3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점포 내에 현수막을 걸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홍보하고 있으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객들이 종이박스로 포장해 갈 수 있도록 종이박스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와인, 알고 즐기면 맛이 두배"

금수장호텔서 '와인&다인' 9일 DJ센터에서 세미나



'와인, 알고 즐기십니까?' 금수장관광호텔과 국내 유명 와인 수입사들이 함께 진행하는 '와인 & 다인' 행사가 6일 오후 7시 30분 금수장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사진)

지난 2005년 첫 행사를 연 후 18 회를 맞은 '와인 & 다인'은 와인과 함께하는 만한 행사로 와인을 배우며 해당 와인 산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역 유일의 정기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칠레 부띠끄 와이너리 '페레즈 크루즈'의 와인 메이커인 프랑수아 제르망 라이온이 30여명의 와인 애호가들과 함께 자리, 칠레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칠레 프리미엄 와인과 어울리는 한식 요리를 즐겼다.

참가자들이 시음한 와인은 한정 생산 돼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켈렌을 비롯해, 페레즈 크루즈의 와인 5종이었다. 또 조개 파자 버섯구이, 생선회, 사과소스와 와인의 정기 문화 프로그램이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2010광주국제식품전이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는 보르도 와인스쿨과 프랑스 농식품

진흥공사가 함께하는 '보르도 와인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르도 와인에 대한 강의에 이어 납도 음식과 어울리는 보르도 와인 5종을 시음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보르도 와인 협회 인증강사인 권홍식(전남과학대 호텔캐탈레학과 겸임교수) 금수장 호텔 체프 소믈리에다.

참가비 2만~3만원. 문의 062-525-2111.

/김미은기자 mekim@

"대형마트 자체상품에서 이물질·세균 발견 속출"

2008년 이후 대형마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7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형마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PB제품은 모두 73건으로, 이중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은 17건이나 됐다.

아울러 식약청이 같은 기간 PB제

품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20개의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으로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 의원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브랜드를 믿고 PB제품을 찾지만 대형마트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안전 관리를 위한 상시 검사 등 위생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크 제이콥스의 환상적인 패션쇼

델이 미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의 2011 루이비통 봄/여름 기성복 컬렉션 의상을 입고 워킹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모

델이 미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의 2011 루이비통 봄/여름 기성복 컬렉션 의상을 입고 워킹하고 있다.

전남농협 '축산연합컨설팅 이동상담실'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7일 영암축협 한우프라자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컨설팅사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연합컨설팅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농협사료 이선복

박사와 김지형 팀장이 초청돼 영암지역 한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우 양관리 교육 및 상담을 했다.

축산연합컨설팅 이동상담실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과 농가 사양관리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

결하고 생산성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장성군에 이어 영암군에서 두번째로 열렸다.

전병덕 경제본부장은 "축산연합 컨설팅 이동상담실 운영 등 농가컨설팅 강화로 전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외국국적 동포도 취업교육 받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창규)는 7일 외국 국적 동포(H-2)들도 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2박3일동안 실시한다.

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건강검진에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수수료 주어져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1800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8만원으로 만들어 85만원에?"

수입화장품 판매값 원가의 3~6배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화장품이 수입원가보다 3~6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유재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프랑스 화장품인 시슬리의 수프리미아(50ml)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원가가 1개당 17만9천원인 반면 판매가는 85만원으로 원가보다 67만원 비싸게 판매했다.

또 일본 화장품인 SK II의 페이

셀 트리트먼트 에센스(215ml)의 경우 관세포함 가격이 4만1천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4.3배 수준인 17만9천원에 판매했다.

독일산 향수인 안나수이의 한 제품(30ml)은 관세포함한 수입가격이 9천원이지만, 시중에는 원가의 5.9배 수준인 5만3천원에 유통됐다.

유재중 의원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의 실태를 알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중 통화량 증가율 4년來 최저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광의통화(M2·평균 잔액)의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8.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7일 밝혔다. M2 증가율은 2006년 8월의 7.5% 이후 가장 낮았다. 2008년 5월 15.8%까지 높아졌던 M2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자릿수를 기록해 하락 추세를 보였다.

8월 M2 증가율이 특히 낮아진 것은 단기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가 줄어든 데다 정기 예·적금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M1의 8월 중 평균 잔액은 7월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도 8월 중 12조1000억원 늘어 7월(13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작아졌다. 이는 세금 납부 같은 일시적 요인에도 해외 자금 유입이 주춤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해외 자금 유입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7월 58억2000만달러에서 8월 20억7000만달러로 줄었고, 증권투자 순유입액도 86억8000만달러에서 14억1천만달러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값비싼 전기요금/난방비 태양광, 태양열 설비로 대비하십시오 Save Energy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온수기 시설 설치사업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난방비 획기적으로 절감해보세요 ~

3.0kw 설치기준 800 만원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3,05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300리터 설치 금액 350만원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062-268-5118 / 011-9435-0441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

SCREEN GOLF

두암골프존

SEASON EVENT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Season event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에만 적용합니다.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2010년 12월 01일부터는 정상이금으로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 시설 5개홀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점타석 스윙플레이트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원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 제외)

영양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234-9999